소니 주식회사는 W3C Advisory Board 에 이가라시 타츠야(Tatsuya Igarashi) 씨를 추천합니다.

이가라시씨는 동경 Sony R&D 센터의 선임 연구원입니다. 그의 W3C 에서의 경력은 2011 년 웹의 미디어 기술 관련 "Web and TV Interest Group" 에 참가하면서 시작되어, 현재는 "Media Entertainment Interest Group"의 공동 의장입니다. 지난 10 년 동안 소니의 W3C Advisory Committee 대표로, 소니 그룹의 W3C 활동을 강력히 지원해 왔습니다. W3C 에서의 활동 외에도 홈 네트워킹, IPTV 및 방송등의 분야에서, 1394TA, UPnP, DLNA, Open IPTV Forum, HbbTV, ATSC 3.0 등 많은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업계 주도 포럼 창설과 운용에도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.
소니는 이가라시씨가 W3C Advisory Board 의 멤버가 되는것을 지지하고 W3C 멤버와 웹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헌 할 것을 확신합니다.

이가라시씨의 선거 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가 처음 웹과 만난 것은 1994 년 이었습니다. 당시 저는 소니에서 CD-ROM 과 MiniDisc 를 사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던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. 우리는 하이퍼 링크와 하이퍼 미디어 기술을 기록 매체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있었습니다. 초기 NCSA 모자이크 브라우저의 출현이,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 할수있게 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저는 1995 년에 HTML 2.0 호환 브라우저를 갖춘 TV 인터넷 단말기를 개발하는 새로운 R&D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, 소니의 자회사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개발 팀을 이끌었습니다. 당시 그 기기의 시장 도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, 그러한 경험을 통해 웹 자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그 이후로 웹 기술을 도입 한 IPTV 및 방송 표준을 연구했습니다. 2 년전, 웹을 보다 신뢰 할수있고 분산화되도록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. 저는 진정으로 웹을 믿는 사람입니다.

제가 W3C Advisory Board 에 선출 될 경우, AB/2020 의 우선 순위에 따라, 특히 다음 활동을 지원하고자합니다.

- W3C 는 계속해서 웹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: "W3C Legal Entity" 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향후 W3 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 "W3C Process 2020"의 프로세스 개선은 W3C 사양이 광범위한 검토와 총의에 따른 결정으로 책정되어,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른 AB 멤버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W3C 에 조언하고 지원하고자합니다.

- W3C 는 다양한 참여를 장려합니다 : "One Web"의 정신 아래, 국가 /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· 산업 ·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W3C 표준 개발에 참여할수 있어야합니다. 이를 위해, 언어 장벽을 극복하도록 "W3C Globalization"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가속하고 싶습니다. 또한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, 출판, 금융, 통신 등 IT 산업과는 다른 기술 분야와 표준화 스타일을 가진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더 많은 참여를 권장하고 싶습니다. 저는 젊은 세대가 W3C 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

- W3C 는 웹의 진화를 탐구합니다 : W3C 의 임무는 World Wide Web 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. "W3C Strategy" 과 "W3C Incubation"의 활동은 웹의 진화를 촉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 웹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, 웹 소프트웨어 엔지니어,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웹 기술 연구자의 관점에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.

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. 그러나 20 년 동안 전 세계의 친구들 덕분에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. W3C에서 더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협력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AB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